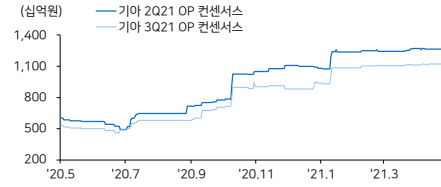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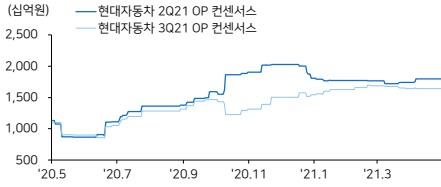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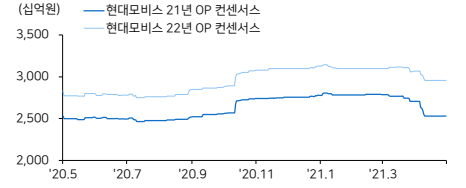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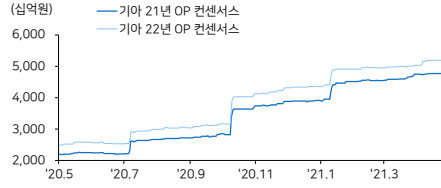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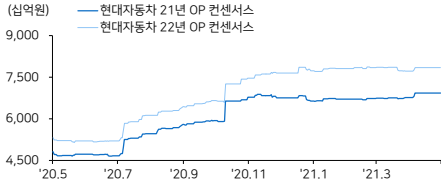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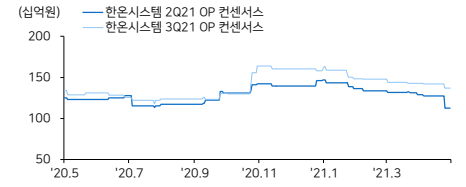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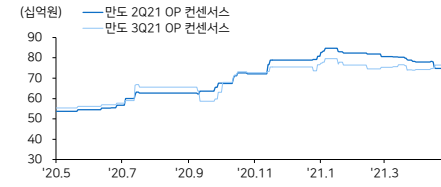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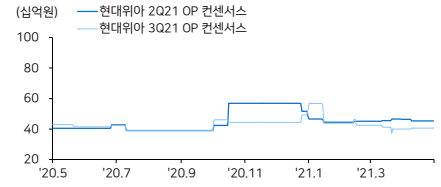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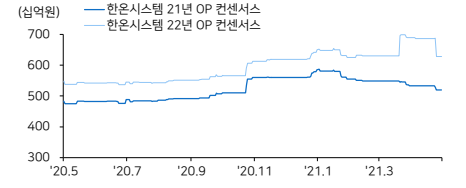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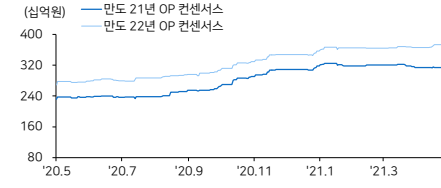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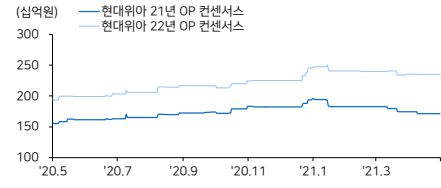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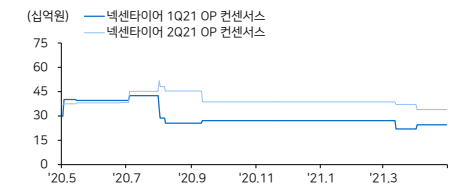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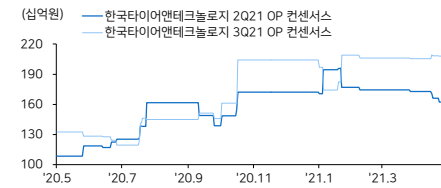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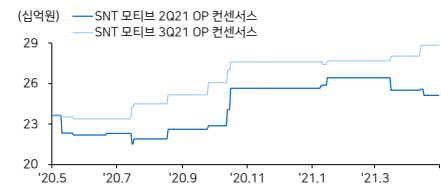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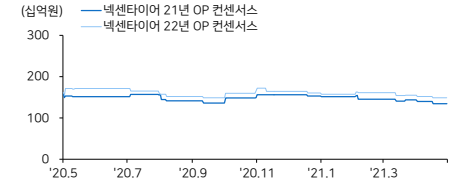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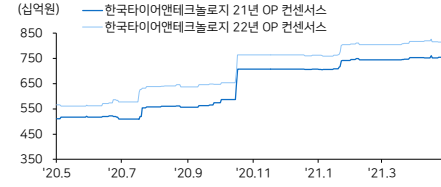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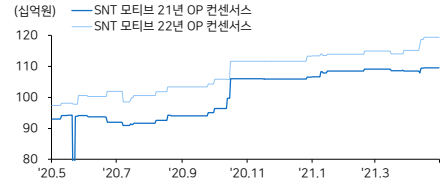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은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반도체 대란에도... 자동차 생산·수출 두자릿수 증가 (디지털타임스)

반도체 공급부족 대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41.3% 증가한 2만5천269대, 수출은 44.4% 증가한 3만2천838대로 집계되며 4개월 연속으로 상승 중. 자동차 부품 수출 역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 <https://bit.ly/3uRN4Q8>

현대차, 콩고에 펠리세이드 500대 수출...아프리카서 인지도 ↑ (뉴시스)

현대차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대상 대규모 차량 공급(펠리세이드 500대)을 통해 아프리카 신 시장 개척에 나선. 아프리카 지역은 구매력을 갖춘 정부 대상 판매가 주를 이루는 만큼, 이번 수출이 아프리카 신시장 개척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 <https://bit.ly/3ok2KZT>

7조 대어 '한은시스템, 글로벌업체서 눈독' (한국경제)

한은시스템 공동 매각주관사인 모건스탠리, 에비코어는 최근 잠재 인수 후보들에 한은시스템의 투자설명서(IM)를 배포함. 일본 '덴소'에 이어 차량 열관리 업체 2위 기업으로, 인수 가격은 7조원 안팎으로 추산됨. <https://bit.ly/2RS5HJD>

중 BYD, 전기차·배터리 판매량 급증...점유율 약진 (THE GURU)

BYD는 올해 4월 말 현재 YoY +128.53% 증가한 80,413대의 전기차를 판매함.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누적 설치 용량은 약 7,428GWh를 달성함. 특히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을 넘어섬. <https://bit.ly/3w7XuU>

현대차, 2022년까지 전기차 '풀 라인업' 갖춘다 (THE GURU)

현대자동차가 2022년까지 전기차 8개 신모형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세움. 연내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 eG80, 소형 SUV GV60을 출시할 예정이며, 내년 GV70의 전동화 모델, 아이오닉6을 출시하며 전기차 풀 라인업을 구축할 예정. <https://bit.ly/3tVsxQ>

현대모비스, 美 공장 채용 확대...수주 다락화 시동 (THE GURU)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집중된 매출 구조 개선과 실적 회복을 위해 미국 생산 거점 채용을 확대하는 중. 수주 다각화 전략을 토대로 지속해서 고객사를 확보해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 <https://bit.ly/3ojyNsZ>

피스커-폭스콘 손잡고 美 전기차 공장 짓기로 (한국경제)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피스커와 아이폰 위탁생산 업체로 유명한 대만 폭스콘이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23년 본격적인 자동차 생산에 돌입. 모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용 플랫폼 'FP28' 기반, 3만 달러 이하의 5인승 전기차로 예상됨. <https://bit.ly/33LDrpY>

중 인터넷 기업 '쿠팡'...이번에는 모빌리티 플랫폼 (서울경제)

지난 14일 디디추싱·메이탄 등 10곳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관계자를 불러 웨탄(約談)을 실시함. 웨탄은 중국에서 정부 기관이 관련 기업들을 불러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질책하며 문제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 <https://bit.ly/33KLGmX>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